

요엘서와 라오디게아적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 제38편

Jeff Pippenger
2026-01-30

제삼십팔번

하늘의 떡의 시험은 예수의 시대에 제자도의 오메가 시험이었고, 또한 고대 이스라엘의 언약사의 알파로 대표되는 만나의 시험과의 관련에서도 오메가였다. 시작은 만나였고, 끝은 하늘의 떡이었다. 오메가는 언제나 가장 크므로, 제자들의 가장 큰 이탈은 가버나움을 그리스도의 역사와 제자도 시험에서의 오메가로 규정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으리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인자가 자기 나라에 임하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할 자들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16:24-28.

가버나움은 오메가 시험이다. 가버나움에서의 시험은 열 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기름의 시험으로서, 밤중의 외침에서 시작되며 미련한 처녀들이 자신들에게 기름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기간을 개시한다. 그들은 요한복음 6장 66절의 가버나움의 위기로 표상된 바와 같이, 일요일 법령이라는 단혀 가는 문에 다가가면서 당황하기 시작한다. 예언적으로 그들은 '수치를 당한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를지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이는 떡의 기근도 아니요 물의 갈함도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 그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이리저리 떠돌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음질할 것이나, 얻지 못하리라. 그 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하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를 두고 맹세하며 말하기를, 단아, 네 신이 살아 있다, 또 브엘세바의 풍속이 살아 있다 하는 자들, 곧 그들도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모스 8:11-14.

가버나움의 오메가 시험은 2024년의 기초적 시험 뒤에 이어지는 오메가 시험을 예표한다. 오메가 시험은 신부가 일요일 법령에 앞서 인침을 받는 때이다. 그때 분리가 영원히 최종 확정된다. 이는 신부가 정결케 되면, 다시는 타국인(이방인)이 영원토록 예루살렘을 지나 다니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또 시온에서 포효하시며, 예루살렘에서 그의 음성을 발하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라. 그러나 여호와는 그의 백성의 소망이 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힘이 되시리라. 그리하여 너희는 내가 시온, 나의 거룩한 산에 거하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지니라. 그때에는 예루살렘이 거룩하게 될 것이며, 다시는 이방인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그 날에 산들에서는 새 포도주가 흘러내리고, 언덕들에서는 젖이 흐르며, 유다의 모든 시내들에는 물이 흐르고, 여호와와 그의 집에서 샘이 솟아 싯딤 골짜기에 물을 대리라.

애굽은 황무지가 될 것이며, 에돔은 황폐한 광야가 되리니, 이는 유다의 자손에게 행한 폭력 때문이요, 그들이 그들의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렸음이라. 그러나 유다는 영원히 거하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이르기까지 거하리라. 이는 내가 아직 깨끗하게 하지 아니한 그들의 피를 내가 깨끗하게 할 것임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요엘 3:16-21.

예루살렘은 조사심판의 최종 국면에서 죄에서 정결케 되며, 곧 스가랴 3장에서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라오디게아의 의복을 대신하여 흰 세마포의 빌라델비아 의복이 입혀진다. "그때에 예루살렘이 거룩하게 될 것이요,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는 알곡이 가라지와 분리되어 첫 열매의 제물로 모아졌기 때문이다. 이것은 오메가 시험에서 일어나며, 하늘의 창들이 열릴 때, 예수께서 보석들을 궤 속에 던져 넣으시고 온 세상에 이르시되 "와서 보라" 하실 때에 일어난다. "와서 보라"—나의 나라의 기치, 나의 신부, 옛적과 같이 레위인들의 봉헌을. "와서 보라"—나의 성전, 보석으로 가득한 나의 궤를. 그 각각은 영광의 나라의 면류관을 이루는 부분으로 준비되어 있다.

2024년의 기초적 알파 시험은 성전의 오메가 시험으로 이어진다. 오메가 시험은 하늘의 창들이 열릴 때, 곧 신부가 자신을 단장하는 때에 일어난다. 미련한 처녀들과 그들의 거짓된 "평안과 안전"의 늦은 비 기별은 바람에 의해 열린 하늘의 창들을 통해 밖으로 쓸려나간다. 이는 이 역사의 기별이 동풍의 기별이기 때문이다. 그 기별은 동풍의 날에 그치게 되는 이사야의 거친 바람이며, 또한 십사만 사천이 인쳐지는 때에 제지되는 요한이 말한 네 바람이다.

천사들은 네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그 바람은 격노한 말이 풀려나 온 지면 위로 내달아 가며 그 지나간 자리에 파멸과 죽음을 가져오려는 것으로 표상된다.

"우리가 영원한 세계의 바로 문턱에서 잠들어 있어야 하겠는가? 우리가 둔하고 차갑고 죽어 있어야 하겠는가? 오, 우리 교회들 안에서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생기가 불어넣어져 그들이 일어나 서서 살게 되기를." Manuscript Releases, 제20권, 217쪽.

이슬람의 동풍이라는 그 기별을 거절하는 자들은, 바로 그들의 반역의 표상인 바람에 휘몰려 창 밖으로 내던져진다. 기름이 없는 미련한 무리에게는 오류의 찌꺼기가 영원히 달라붙는다. 에브라임은 다시 자기 우상들과 연합되었다. 그들은 인침의 때에 관한 지식의 증가와, 그 인침의 때가 셋째 화의 이슬람과 맺는 관계를 거절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거짓 늦은비 기별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실 것이다.

내 백성은 지식이 없으므로 멸망한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으리라.

그들이 번성할수록 나를 더욱 범죄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리라. 그들은 내 백성의 죄를 먹어 치우며, 그들의 죄악에 마음을 둔다. 그러므로 백성과 같이 제사장도 그러할 것이며, 내가 그들의 길대로 벌하고 그들의 소행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죽하지 못하며, 음행하여도 번성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를 주목하는 것을 그쳤음이라. 음행과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은 그들의 목상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팡이가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음행의 영이 그들을 미혹하였고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을 떠나 음행하였음이라.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하고 언덕 위에서 분향하되, 상수리나무와 백양나무와 느릅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늘이 좋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배우자들은 간음하리라. 너희 딸들이 음행할 때 내가 벌하지 아니하고, 너희 배우자들이 간음할 때에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자신이 창기들과 어울리고, 창녀들과 함께 제사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엎드려지리라.

비록 네가, 이스라엘아, 음녀 노릇을 할지라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희는 길갈로 오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고,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이스라엘은 배역하는 암송아지 같이 배역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넓은 곳에서 어린 양처럼 먹이시리라.

에브라임은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그를 내버려 두라.

그들의 술은 시어졌고, 그들은 끊임없이 음행하였다. 그녀의 통치자들은 수치스럽게도 '주라' 하는 것을 사랑한다. 바람이 그녀를 그녀의 날개들 속에 묶었고, 그들은 그들의 제물 때문에 수치를 당하리라. 호세아 4:6-19.

제거되는 찌꺼기는 미련한 처녀들과 그들이 결합되어 있는 그릇된 교리들 모두이다. 우리는 우리가 먹는 것과 같은 존재이며, 그들은 동풍의 메시지를 거절하고, 그 대신 그 뒤에 강한 미혹을 몰고 오는 거짓을 선택하였으며, 그들의 거짓된 '평안과 안전' 늦은 비 메시지에 결합되었다. 요엘의 새 포도주는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며, 바로 그 자리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입이 된다.

진리를 거절할 때 사람들은 그 진리의 근원이신 분을 거절한다.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음으로써 그들은 율법을 제정하신 이의 권위를 부인한다. 거짓 교리와 이론으로 우상을 만드는 것은 나무나 돌로 우상을 빚어 만드는 것만큼이나 쉽다. 사탄은 하나님의 속성을 왜곡하여 사람들이 그분을 거짓된 모습으로 상상하도록 이끈다. 많은 이들에게는 여호와의 자리에 철학적 우상이 좌정해 있으며, 그분의 말씀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창조의 작품들 속에 계시된 그대로의 살아 계신 하나님은 극히 소수에게만 예배를 받는다. 수천의 사람들이 자연의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자연을 신격화한다. 형태는 다르지만 오늘날 기독교 세계에도 엘리야 시대의 고대 이스라엘 가운데 그랬던 것과 조금도 다름없이 우상숭배가 존재한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곧 철학자들, 시인들, 정치가들, 언론인들의 하나님, 세련되고 유행을 좇는 사교계의 하나님, 많은 대학과 대학교, 심지어 일부 신학교의 하나님은 페니키아의 태양신 바알보다 별반 나은 바가 없다. 대쟁투, 583.

밀러의 꿈에서 참과 거짓이 분리될 때, 바람이 거짓 처녀들을 밖으로 몰아내고, 한편 주께서는 열린 창고의 오메가 내적 시험 동안 그분의 신부를 인치신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바 언약의 사자라. 보라, 그가 오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견디어 내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서겠느냐? 이는 그가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임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며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과 은 같이 그들을 정결하게 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여호와께 기쁨이 되리라. 말라기 3:1-4.

레위 자손은, 아론의 짐승의 우상 시험에서 신실하였고 또다시 여로보암의 짐승의 우상 시험에서도 신실하였던 그 레위인들의 아들들이다. 그들은 짐승의 우상 시험을 통과하는 자들로서, 그것은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그에 의해 결정되는 시험이며, 우리가 인침을 받기 전에 그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시험이다.

주님께서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짐승의 형상이 세워질 것임을 내게 분명히 보여 주셨다. 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질 큰 시험이 될 것이며, 그 시험을 통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인침을 받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시험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거짓 안식일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입증한 모든 자는 주 하나님 여호와와 의 잇발 아래 설 것이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 온 진리를 저버리고 일요일 안식일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성경주석, 7권, 976쪽.

짐승의 형상에 대한 시험은 일요일 법령 때의 짐승의 표에 대한 시험에 앞선 시험이며, 문이 닫히기 이전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그것은 의인들을 정결케 하며 또한 의인과 불의한 자를 구별하는 시험이다. 그것은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의 음식을 먹은 자들보다 용모가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하다고 판명된 시험이다. 한 부류는 하늘의 떡을 먹었고 다른 부류는 바벨론의 떡을 먹었다. 그것은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떡의 시험이다.

외적으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시험의 시기는 미합중국 내에서의 교회와 국가의 결합, 곧 짐승의 형상에 대한 시험이다. 이에 상응하는 내적 시험의 시기에는 인성의 형상을 드러내는 한 부류의 처녀들과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형상을 드러내는 또 다른 부류의 처녀들이 구분된다. 말라기가 레위인들의 정결과 제련을 밝힌 후,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시험을 제시하신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가까이 임할 것이며, 주술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거짓 맹세하는 자들과 품꾼의 삯을 억압하는 자들과 과부와 고아를 학대하는 자들과 나그네의 권리를 굽게 하는 자들과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속히 증인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말라기 3:5, 6.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언약의 사자의 시험에서 탈락한 그 부류에게는, 어리석은 처녀들 각각에 대응하여 비참하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별거벗은 상태에 상응하는 다섯 가지 정죄가 선포된다. 이는 다섯 어리석은 처녀에게 해당하는 다섯 가지 예언적 속성으로,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였느니라'라는 구절로 요약된다. 이들은 기초적인 첫 알파 시험에 실패한 자들이다. 그들이 실패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2024년의 기초적인 외적 알파 시험에 실패한 자들이다.

과거의 역사에서 배워야 할 교훈들이 있다. 모든 이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언제나 하시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이에 주의를 환기한다. 복음이 에덴에서 아담에게 처음 선포된 이래 줄곧 그래 왔듯이, 지금도 하나님의 사역과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

"나라들과 교회의 역사에는 전환점이 되는 시기들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러한 여러 위기가 닥쳐올 때, 그때를 위한 빛이 주어진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영적 진보가 있고, 거절하면 영적 쇠퇴와 파선이 뒤따른다. 주께서는 그분의 말씀 가운데, 복음의 공세적 사역이 과거에 어떻게 전개되어 왔고 장차 어떻게 전개될지를, 사탄의 세력들이 그들의 마지막 놀라운 운동을 벌일 마지막 투쟁에 이르기까지 밝혀 주셨다." Bible Echo, 1895년 8월 26일.

라오디게아인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시는 방식이 언제나 한결같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빛이나 기름이 받아들여지면 복이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파선이 있다.

옛 시대에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그의 비밀을 그의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셨다. 그 앞에는 현재와 미래가 동일하게 명백하다. 하나님의 음성은 시대를 내려오며 울려 퍼져, 장차 있을 일을 인간에게 알린다. 왕들과 방백들은 정하여진 때에 제 자리에 선다. 그들은 자기들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인류를 대하심에 관한 기록들이 '말세가 임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선언한다. 다니엘의 역사 역시 우리의 훈계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 '여호와와 그의 비밀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며 통치하신다. 그는 자기 백성에게 하늘을 닫지 않으셨다. 유대 시대에 그러하였듯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의 종인 선지자들에게 자신의 비밀을 계시하신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한다: "또 우리에게서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너희가 어두운 곳에 비치는 등불과 같이 그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 날이 새어 셋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하라.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이 해석된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옛적에 결코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불신앙하고 불경건한 자들은 예언의 말씀으로 미리 예고된 시대의 징조의 중요성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들은 무지로 말미암아 영감으로 주어진 기록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자들이, 위대하신 스스로 계신 이께서 자기 뜻을 알리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방법과 수단을 조롱조로 말할 때,

그들은 자신들이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 모두에 대하여 무지함을 드러낸다. 창조주는 인간 본성 가운데 자신이 다루셔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신다. 또한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어떤 수단을 사용하셔야 하는지도 아신다.

사람의 말은 미덥지 않다. 사람들의 단언을 의지처로 삼는 자는 떨어진다. 그는 언젠가 난파된 선박과 같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오하며, 영원히 존속한다.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점, 한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의 끝없는 세세를 통하여 존속할 것이다. 청년 지도자, 1903년 12월 1일.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며, 항상 그러하셨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신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시대마다 모든 위대한 개혁이나 종교 운동에서 놀라운 유사성을 드러낸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시는 원칙은 언제나 동일하다. 오늘날의 중요한 운동들은 과거의 운동들에 상응하며, 옛 시대 교회의 경험은 우리의 시대를 위해 매우 귀중한 교훈을 제공한다. 대쟁투, 343쪽.

말라기 3장 1-4절은 언약의 사자를 위하여 길을 준비하는 사자를 지목하고, 레위인들의 제련과 정결케 함을 밝힌다. 그런 다음 주께서는 라오디게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을 지적하시니, 이는 그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근본적 알파 시험에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그들의 두려움의 결여는 지식에 대한 의도적 거절을 나타내며, 그들이 거부하는 지식의 맥락은 곧 길을 예비하는 사자의 역사와 그 뒤이어 오시는 신적 사자를 받아들이는 데에 있다. 모든 선지자들은 말세를 지목하며, 참된 것이 없다면 거짓된 개혁 운동을 지목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다른 모든 종교 개혁 운동에서 시도해 온 바로 그것, 곧 참된 역사를 대신하여 위조물을 그들에게 내세움으로써 사람들을 속이고 멸망시키려는 일을 시도하였다. 그리스도교 교회의 첫 세기에 거짓 그리스도들이 있었던 것처럼, 16세기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각 시대의 대쟁투』, 186.

말라기 3장 처음 여섯 절의 문맥은 십사만 사천의 개혁 운동에 속한 레위인들을 정확하고 정결하게 하는 일이다. Future for America는 바로 그 운동이거나, 수많은 모조품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 말라기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이미 너희 조상들의 때로부터 너희는 나의 규례에서 떠나 그것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말라기 3:7.

사대에 걸친 점진적 반역은 요엘서의 도입과 배경을 이루며, 말라기서는 여기서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떠나갔느니라"라고 말함으로써 그 동일한 점진적 반역을 지적한다. 1863년, 곧 반역 첫 세대의 조상들의 때로부터, 그들은 갈수록 더욱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다. 그들의 계속되는 죄에 대한 선고는, 그들이 오직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로 돌아오시겠다고 애절한 어조로 약속하는 라오디게아의 호소로 완화된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하겠느냐?' 하였다. 사람이 하나님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를 도둑질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도둑질하였나이까?' 한다. 십일조와 헌물에서다. 너희는 저주로 저주를 받았으니, 너희 곧 이 온 나라가 나를 도둑질하였기 때문이다.

너희는 모든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리고 이제 이 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창들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쏟아 부어, 너희가 그것을 쌓을 곳이 없도록 하지 아니하는지.

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책망하여, 그가 너희 토지의 소산을 멸하지 못하게 하고, 밭에서 너희 포도나무가 때가 이르기 전에 그 열매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니, 이는 너희가 기쁨의 땅이 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라기 3:5-12.

2024년의 알파적 기초 외적 시험 뒤에는 2026년의 마감석 내적 시험이 이어진다. 그 마감석 시험은 하늘의 창들이 열릴 때 일어나며, 그 열린 창들이 승리하는 교회의 맥락에서 식별되는 세 곳은 말라기 3장, 밀러의 꿈, 요한계시록 19장이다. 말라기는 알파, 밀러의 꿈은 중간, 요한계시록은 오메가이다. 그 시험은 먼지 술을 든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께서 보석들을 보석함에 던져 넣으시는 모습으로 예증된다. 그 보석들은 정연한 질서대로 완전하게 배열된 진리들이며, 동시에 남은 무리이다. 창고는 그 양식이 모아지고 분배되는 곳이다. 만나의 시험과 가버나움의 시험, 그리고 하늘의 떡의 경우와 같이—'양식'이 그 주제이다.

"고기"는 열 처녀의 비유에서의 기름이며, 그것은 품성, 성령, 그리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형성해 가는 이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성령을 들여오는 예언적 기별을 가리킨다. "고기"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에게서 끊어지는, 요엘의 "새 포도주"다. 둘째 천사의 성전에 관한 내적 머릿돌 시험을 통과하려면 외적 최초의 알파 기초 시험을 통과했어야 한다. 기초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기초 위에 세워지는 성전의 일원이 될 수 없다. 또한 그 기초적 시험을 통과한 자들의 수에 들지 못한다면, 거짓된 영적 집을 모래 위에 세우게 될 것이다. 요한은 그 거짓된 영적 집을 "사탄의 회당"이라 부르고, 예레미야는 "조롱자들의 회중"이라 부른다.

'너희의 모든 십일조와 헌물을 창고에 가져오라'는 것은 인이 찍히는 내적 시험이다. 먼지술을 든 사람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커진 보석함에 던져 넣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모든 십일조를 창고에 들이는 사역을 보여 주었다. 그가 하늘의 창들에서 복을 쏟아 부을 때, 레위인들은 들어올려지는 헌물, 곧 거제이다. 먼지술을 든 사람의 보석은 그의 남은 백성이며, 이사야 6장에서 그 남은 백성은 십일조로 규정된다.

그때 내가 물었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그가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거주자 없이 황폐해지고, 집들에는 사람이 없어지고,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될 때까지다. 주가 사람들을 멀리 옮기시고, 그 땅 한가운데가 크게 버려질 때까지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십분의 일이 남을 것이며, 그것도 돌아왔다가 다시 멸망을 당할 것이다. 잎을 떨어뜨려도 그 속에 그루터기가 남아 있는 테일나무와 참나무처럼, 그 거룩한 씨가 그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이사야 6:11-13.

주께서는 여러 증인들의 증언에서 제기되는 '얼마나 오래'라는 질문이 일요일 법령을 가리키는 것임을 밝히신다. 또 이사야 6장 3절에서 천사들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다"라고 선포한다. 화이트 자매는 이것을 요한계시록 18장의 큰 권세를 가진 천사와 연결한다.

그들(천사들)은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미래를 바라볼 때, 승리의 찬양이 아름다운 선율로 서로 창화하며 울려 퍼지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만으로도 온전히 만족하며, 그의 임재 앞에서, 그의 승인의 미소 아래에서, 그들은 그 이상을 바라지 않는다. 그의 형상을 지니고 그를 섬기며 예배함으로써, 그들의 가장 높은 포부는 온전히 이루어진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6년 12월 22일.

이사야 6장은 요한계시록 18장의 두 음성 중 첫째 음성의 영광으로 땅이 비추어지던 때, 곧 9/11을 가리킨다. 이사야가 '얼마나 오래'라고 물을 때, 그 장의 역사는 9/11로부터 둘째 음성이 임하는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으로 규정된다. 이사야는 일요일 법령에 남은 자—곧 십분의 일이 있을 것임을 알린다. 그 남은 자는 그들 안에 실체를 지니고 있으니—그들의 그릇에 있는 기름이다.

그러나 그 안에는 십분의 일[십일조]이 있으리니, 그것이 돌아올 것이며, 먹힘을 당하리라. 그들이 잎을 떨어뜨릴 때에도 그들 안에 실체가 있는 테일나무와 참나무처럼, 그와 같이 거룩한 씨가 그것의 실체가 되리라. 이사야 6:13.

'십분의 일'은 말라기와 또한 예레미야의 '돌아오라'는 부르심에 응답하여 '돌아온' 자들이다. 그들은 신성(거룩한 씨)과 결합된 인류의 나무들이다. 그들은 먹힐 것이다. 이는 그들이 사자들일 뿐만 아니라 오순절 흔든 떡의 기치요, 이방인들이 먹을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들이리니, 네가 내 앞에 설 것이요, 또 네가 천한 것 가운데서 귀한 것을 가려 내면 네가 내 입과 같이 되리라. 그들은 네게로 돌아올 것이나,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예레미야 15:19.

예레미야는 그가 말씀을 발견하여 그것을 먹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1840년 8월 11일, 1888년, 그리고 9/11로 표상된 알파요 기초적 시험이었던 천사의 손에 든 기별을 먹은 자들을 대표한다.

주의 말씀을 발견하여 내가 그것을 먹었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며, 이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임이니이다. 예레미야 15:16.

예레미야는 천사의 손에 있는 작은 책을 먹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았고, 그 메시지는 수치와는 반대로 기쁨과 환희를 낳았다. 하나님의 이름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질 때 그는 빌라델비아인인 십사만 사천을 대표한다.

이기는 자를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는 다시는 그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그 위에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12.

예레미야는 9/11의 메시지를 먹었으며 2020년 7월 18일의 실망을 겪었다.

나는 조롱하는 자들의 모임에 앉지 아니하였고 즐거워하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손으로 인하여 내가 홀로 앉았나니, 주께서 나를 분노로 가득 채우셨음이니이다. 어찌하여 나의 고통이 끊이지 아니하며, 나의 상처가 치료되기를 거절하여 불치가 되었나이까? 주께서 정녕 내게 거짓말하는 자 같으시며, 마르는 물과 같이 되시겠나이까? 예레미야 15:17, 18.

예레미야의 "조롱자들의 회중"은 빌라델비아와 서머나에서 언급된 "사탄의 회당", 곧 자신들이 유대인이라 자칭하나 그렇지 아니한 자들이다. 예레미야는 그가 선포한 메시지가 거짓 메시지였기에 기뻐하지 않았으니, 그것은 기쁨이 아니라 오직 수치만을 낳았다. 예레미야의 "낯기를 거부하는 영구한 상처"는, 죽은 마른 뼈들의 골짜기를 가로지르는 거리에서 예레미야와 모세와 엘리야가 죽어 있는 동안 조롱자들의 회중이 기뻐하던 삼 일 반이었다. 그 의심과 불확실성의 기간 한가운데서 주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돌아오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데려오고, 네가 내 앞에 서게 하리라. 네가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골라내면, 너는 내 입과 같이 되리라. 그들이 네게로 돌아오게 하고,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내가 너를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싸울지라도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고 건져낼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악한 자의 손에서 너를 건져내고, 포악한 자의 손에서 너를 속량하리라. 예레미야 15:19-21.

예레미야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놋벽으로 표상되는 군대로 삼으실 것이니, '악한 자'와 '무서운 자'가 그것과 싸울지라도 능히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는 흰 세마포 제복을 입은 기마병들이 탄 흰 말들의 군대이다. 그 군대, 곧 놋벽은 예레미야가 돌아와 귀한 것을 천한 것과 구별할 때 세워진다. 에스겔 37장에서, 화잇 여사가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라 한 그 군대는 그들이 돌아온 후에 일어서나. 남은 자가 돌아오고, 귀한 것과 천한 것을 구별할 때 능한 군대로 일어서며,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입이 된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겨와 알곡을 가려내야 한다. 이는 그들의 아버지가 채택한 동일한 규칙을 사용하기 때문이며, 그 아버지는 최상의 빵을 준비하는 데 특화된 제분업자였다. 그들이 귀한 것과 천한 것, 진리와 오류를 구별한다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나누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파수꾼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는 2023년에 돌아오라는 부르심에 응답하였고, 이어 2024년에는 로마가 그 이상을 확립하는 것과 관련된 기초적 시험에서 큰 무리가 분리되자 실망하였다. 예레미야는 귀한 것과 천한 것을, 진리와 오류를 바르게 분별하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는 때에 이르는 내부 오메가 시험에까지 계속 나아갔다. 하늘이 열리면, 승리하는 교회는 자기를 예비한 것이다. 그 교회는 기초적 외부 알파 시험을 통과하였고, 이어 하늘의 창들과 관련된 내부 오메가 시험도 통과하였다. 그 교회는 통과하여 하나님의 군대의 일부가 되거나, 아니면 바람에 불려 창 밖으로 내던져진다. 이사야 22장의 션나가 그러하였듯 광대한 땅으로 내던져지거나, 또는 보석함 속으로 던져 넣어진다. 즉, 보석함

속으로 던져 놓여지거나, 아니면 느헤미야가 도비야를 내쫓았고 그리스도께서 환전상들을 쫓아내신 것처럼 성전 밖으로 내쫓긴다. 먼지 술을 든 사람이 그 보석들을 보석함에 던져 넣을 때, 그 보석함은 새로운 진리의 틀 속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이거나 하나님의 성전이며, 이 둘은 모두 그리스도의 상징이니, 그리스도는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나뉘셨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혹은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고린도전서 1:13.

그리스도는 바울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신성은 바울의 인성과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인간으로서의 바울이 신성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을 때 분리가 없었다. 이는 인간 사자가 신적 메시지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에브라임이 자기의 이상들과 연합되어 있었던 것만큼이나 확실하게 신성과 연합되어 있었다.

밀러의 꿈에서 성전(보석함) 안으로 던져진 자들은, 양식이 저장되어 배분되는 창고로 들어야 할 말라기 3장의 십일조이다. 그 창고는 십사만 사천의 성전이며, 혹은 베드로가 말한 바 "신령한 집, 거룩한 제사장직"이다. 그 보석함은 신령한 집이고, 그 보석들은 제사장직이다. 이러한 이유로 밀러의 꿈은 "81"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신적 대제사장과 여든 명의 인간 제사장이 결합된 상징이다.

밀러의 꿈에서 먼지술을 든 사람은 보석들(이사야의 십일조와 말라기의 헌물)을 성전에 던져 넣을 때, 곧 그 보석들을 가져오는 것을 보여 준다. 그 성전은 곧 창고요 곧 상자이다. 둘째 천사와 관련하여 흔히 두 가지 질문이 제기되며, 오메가 시험은 알파 시험과 세 번째 리트머스 시험과의 관련에서 둘째 천사이다. 부르심은 돌아오라는 것이며, 그 돌아옴은 모든 십일조와 헌물을 창고로 가져와 그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함으로써 드러난다. 여기에서의 두 질문은 "양식"이 무엇인가, 그리고 "창고"가 무엇인가이다.

보석들이 사자들인지, 아니면 보석들이 기별인지가 그 두 질문이 어떻게 답변되는지를 좌우한다. 만일 그것이 사자들이라면, 그들은 항상 둘째 단계에서 세워지는 성전을 이루는 십일조이다. 만일 그것이 기별이라면, 그것은 성전의 꼭대기 돌로서 완전케 되는 밤중소리의 기별이며, 또한 둘째 천사의 기별이 권능을 입는 기별이다.

또 말씀하시되, 이러므로 사람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런즉 그들은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말지니라. 마태복음 19:5, 6.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초림의 선포로 시선이 다시 돌려졌다. 요한은 예수의 길을 예비하도록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보냄을 받았다. 요한의 증언을 거절한 자들은 예수의 가르침으로 유익을 얻지 못했다. 그분의 오심을 예고한 그 기별에 대한 그들의 반대는 그들을,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 주는 증거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처지에 두었다. 사탄은 요한의 기별을 거절한 자들을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끌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을 오순절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자신들을

두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유대인의 제사와 규례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보여 주었다. 위대한 희생 제물이 드러졌고 받아들여졌으며,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지상 성소에서 하늘 성소로 옮기셨는데, 거기에는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속죄의 유익을 부여 주셨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완전한 흑암 속에 남겨졌다. 그들은 구원의 계획에 관하여 가질 수 있었던 모든 빛을 잃었고, 여전히 그들의 무익한 제사와 예물에 의지했다. 하늘 성소가 지상 성소를 대신하게 되었으나 그들은 그 변화에 대해 알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중보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없었다.

많은 이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의 행위를 전율하며 바라본다. 그리고 그분이 수치스럽게 학대당하신 역사를 읽으면서, 자신들은 그분을 사랑하며, 베드로처럼 그분을 부인하지도, 유대인들처럼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읽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느낀다고 고백한 예수에 대한 그 사랑을 시험하셨다. 온 하늘은 첫째 천사의 기별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지극한 관심으로 지켜보았다. 그러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십자가의 이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리던 많은 이들이 그분의 오심에 대한 복된 소식을 조롱했다. 그 기별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그것을 미혹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들은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교회에서 배척하였다. 첫째 기별을 거절한 자들은 둘째 기별로 유익을 얻을 수 없었고,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 들어가도록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한밤중 외침으로부터도 유익을 얻지 못하였다. 그리고 앞의 두 기별을 거절함으로써 그들의 깨달음이 너무나 어두워져,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보여 주는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도 아무 빛도 보지 못하게 되었다. 나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명목상의 교회들이 이 기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보았으며, 그러므로 그들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에 대한 지식이 없고, 그곳에서의 예수의 중보로부터 유익을 받을 수 없음을 보았다. 쓸모없는 제사를 드리던 유대인들처럼, 그들은 예수께서 떠나신 그 구역에 쓸모없는 기도를 바친다. 그리고 사탄은 그 기만을 기뻐하며 종교적 외양을 취하고, 자신의 권능과 표징과 거짓 이적으로 역사하여, 자칭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이끌고 그들을 자기 울무에 단단히 묶어 둔다. 초기 문집, 259-261쪽.